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1 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진일보한 대한민국의 내일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본 공모전을 통해 모인 3만 여 통의
편지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인성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음이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육부도
더욱 정진하고 힘쓰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어릴 적, 참 좋은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면면들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인 편지들 속에는
훌륭한 스승, 그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인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른, 인성이 바로 선
아이들이 만들어나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최불암

A-Yo! 요즘 '말' 많이 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 감사하고 좋아하는 마음일수록 글로 쓰고,
소리 내어 말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 이번 공모전이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존경 받는 기쁨도 편지를 거치니 두 배,
세 배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재단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재능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공모전 홍보대사 노홍철

고맙습니다, 선생님

발행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775-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 2017.04.05

발행인 • 이제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 홍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홍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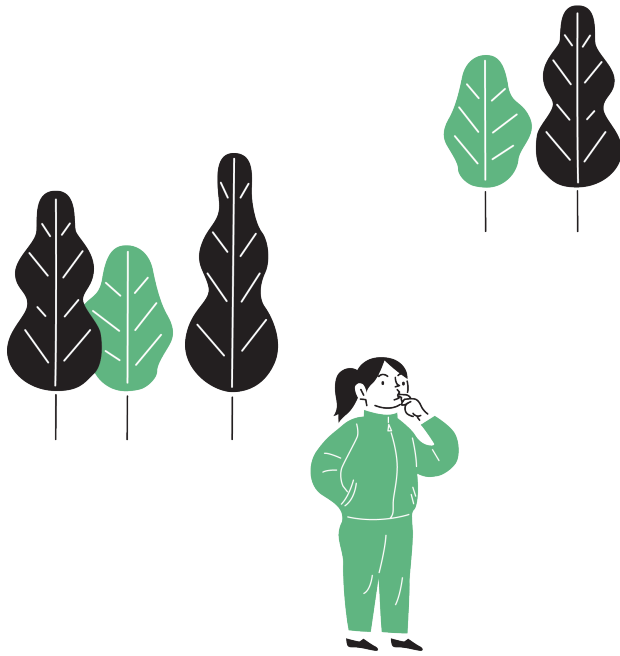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 김경진

인쇄 • 가나 커뮤니케이션

-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총 100편 중 35편을 선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각 원고는 분량에 맞추고자 2,000자 내외로 편집되었으며, 편지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 학년, 이름)은 2016년 10월 공모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목차



발간사	8
심사평	10
심사평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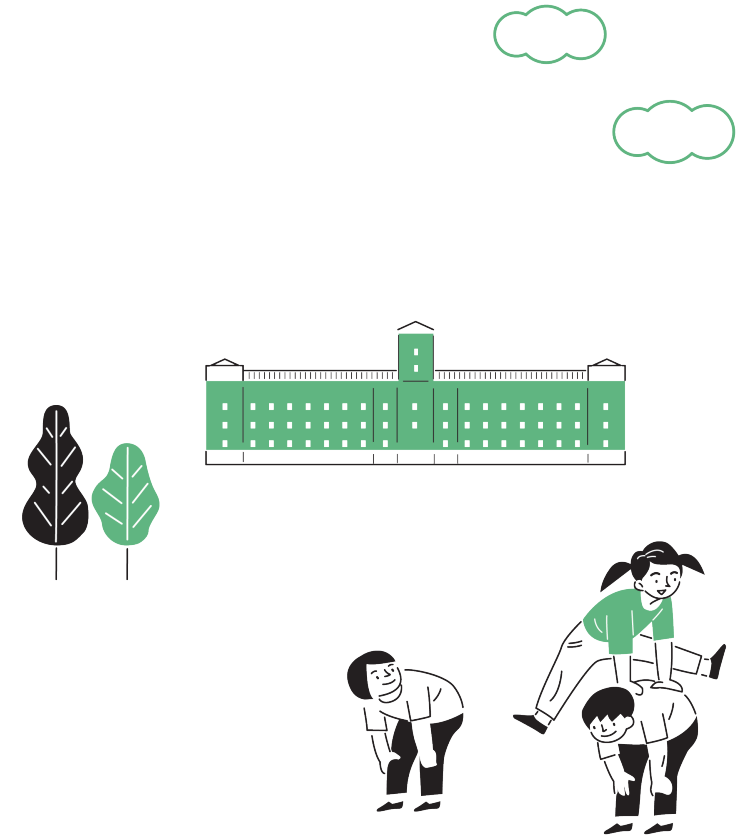
무드리 아이들의 아버지 정종필 선생님께	16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	20
나를 바꾼 오렌지주스	24
자연 속에서 만난 민들레 선생님	28
모두가 1등!	32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김계자 선생님	38
그 시절, 모두가 잊지 못할 슈퍼맨	42
잊지 못할 4학년 선물해준 최선화 선생님께	46
비로소 찾은 진정한 나	50
민준이가 우리 반 에이스	54
모든 장애 학생을 대신해 전하는 말	60
마음으로 나누어주신 아버지께	64
조금 천천히 걸어도 돼	68
최고로 인자하신 최인자 선생님!	72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인연	74

- 80 사탕 한 통에 담긴 말
- 84 언니 오빠를 먼저 사랑할게요!
- 86 못 해도, 안 예뻐도 모두 내 제자
- 90 우리 사이는 어미새와 아기새 같아요
- 94 예의를 접시에 담는 법

- 100 편견 속에서 짝튼 우정
- 104 낙엽 한 장, 새싹 한 뿌리에서 사랑을 배우다
- 108 괴짜 제자의 고백
- 112 아빠이자 선생님의 딸내미가
- 116 맛있는 반찬들, 호텔 스테이크로 갚을게요!

- 122 선생님이 띄운 수많은 별들
- 126 어부바 선생님
- 130 '홍'까지 완벽한 선생님
- 134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나를 일깨워준 것
- 138 교장 선생님, 우리 엄마를 말려주세요!

- 144 글은 똥 싸듯이 쓰는 거야
- 148 초강력 청소기보다 흡입력 있는 수업
- 152 10살 인생에서 만난 허니버터칩 선생님
- 154 부탁하는 기도 대신 감사하는 편지를
- 158 내 마음속 서머힐, 교장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
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노래, ‘스승의 은혜’에서는 스승을 ‘마음의 아버지’라
고 칭했습니다. ‘교사’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
나, ‘스승’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계신 은사이자 삶의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교육계에서
자조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잘못된 사회 인식과 낮아진 교
권 속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도, 참다운 스승도 부족하다는 의미이겠
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사례들은 더욱 값져 보이
고 빛이 납니다. 201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펼친 <고맙습니다, 선
생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30,982건의 편지는 저마
다 각별한 사제지간의 사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
상자를 거르고 상마다의 격(格)을 정하기는 했으나,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스승, 그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인성들의 모습에는 격의 높고 낮
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늘어나는 가정해체와 삭막해지는 사회 현실을 볼 때 아

동의 인성교육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랑과 존경이 얽힌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미담을 우리 사회
에 널리 알리고 아동청소년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공모전을 진행하였
습니다. 어린이재단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각 학교에서 인성교
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성콘서트,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 아이들에게
친근한 웹툰을 통한 사업 홍보에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인성을 키우는 지름길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본 공모전은
아동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바른 인성 만들기에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일은 모
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모전에 관심 주신 모든 여러분
께 감사드리며, 본 공모전이 스승 존경 문화 및 아동 인성 함양의 상징적
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
립니다.

끝으로, 이 뜻 깊은 캠페인을 함께 해주시는 MBC라디오와 문화일
보, 그리고 적극 지지·후원해주시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
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 훈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벽입니다.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학생 여러분과 은사님, 학부모 모두에게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선발을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전을 시작하는 시점에, 선발계획을 전국에 공고하였으며, 각 시·도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편지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 한 3천 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3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3만 982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와 2차 심사에 네 분의 은퇴하신 선생님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급 직원 20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많은 편지를 읽고 평가해야 하는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많이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예측이 또 빗나갔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얼굴 표정이 환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읽으니 마음이 많이 힐링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3차 심사는 5분의 심사위원들께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제 적합성, 진실성, 충실성, 그리고 참신성 등 4가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쓴 편지가 감동적일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 몇 편지를 읽으면서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학생의 은사님께서 직접 읽으신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한 통의 감사편지가 이토록 위력적일 줄 몰랐습니다. 교실붕괴라는 말이 흔해진 요즘, 스승의 날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교권과 인권이 대치되고 있는 요즘, 감사편지 한 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는 어른이 하기 나름이지요. 행복한 사람만이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편지쓰기를 주최하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BC, 그리고 후원하시는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편지 3만이 아니라 30만 통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후년에는 300만 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상자와 그들 은사님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조벽

선생님께 쓰는 편지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면 훌륭합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무척 반가우실 테지요. 어쩌면 감격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가 여러 사람과 비교가 되는 공모전이라면 어때야 할까요? 그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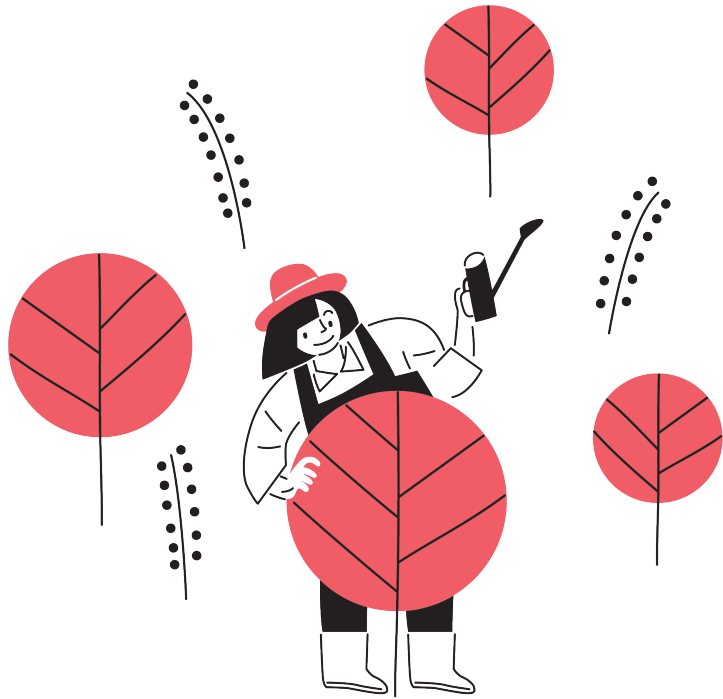
편지는 내 생각을 선생님이 읽는다는 전제 하에서 글로 적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선생님께서 배운 지혜를 실천의 밑거름으로 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016년 처음 개최된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의 편지들은 모두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한 것들입니다. 어린이재단이 이런 행사를 과감히 개최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들을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개의

편지는 선생님께 인사를 올리고 자기의 과거 추억을 서술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전임을 생각했다면 좀 더 튀는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배운 지혜와 가르침으로 자신이 어떤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심사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좋은 편지들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당선자에게는 무한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심사위원 고정욱



선생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선생님의 격려가 거름이 되었어요

무드리 아이들의 아버지
정종필 선생님께

경기 와부고등학교 1학년 5반 황수민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

부산 솔빛학교 3학년 2반 안나경

나를 바꾼 오렌지주스

울산 약사고등학교 2학년 8반 김다비

자연 속에서 만난
민들레 선생님

서울 신길초등학교 4학년 1반 현세영

모두가 1등!

강원 만대초등학교 6학년 4반 유상원

무드리 아이들의 아버지 정종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선생님과 열 세 명의 시골 아이들의 추억이 깃든 무드리 초등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넘겨보면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시에서는 ‘자신을 키운 것의 팔 할은 바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를 키운 것의 팔 할은 너무 작아서 학교라고 보기에 애매했던 무드리 초등학교와 저희를 보듬어 주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드리 초등학교를 알기 전엔 정말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갖게 된 장애로 한쪽 다리를 끌며 걷는 걸음걸이와 오래 걷기 힘들어 늘어나는 몸무게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이상하게 걷고 똥똥하고 성격 나쁜 짜증나는 여자애’로 불리게 된 저는 늘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머니께서 무드리 초등학교를 알게 되셨습니다.

지독히도 힘들던 초등학교 3학년 가을, 학교가 끝난 어느 오후 저는 무드리 초등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생님과 추억은 모두 특별하고 신기해서 항상 제가 힘들고 지칠 때 한 조각씩 꺼내먹는 초

콜릿 같습니다.

한 조각 꺼내보자면, 지금의 제 좌우명인 ‘웃어라’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데에는 정종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매미도 울 무렵, 모두가 신나는 운동회를 기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다칠까봐 늘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면 교실에 남겨져있던 저는 당시에 혼자 교실에 남아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야! 달리기 하러 가야지~”라며 웃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리둥절한 저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신 선생님께서는 출발선으로부터 죽히 열 걸음은 앞선 곳에 서셨고, 제 손을 잡고 달려주셨습니다. 사실 그 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달리는 모습도 이상할 게 뻔한 제가 괜히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도 우리학교 학생이야.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하던, 꼴찌를 하던, 그냥 즐기면 돼. 쌤이랑 같이 뛰자!” 그 말은 이제

껏 남들이 보기에 이상할까봐, 놀림거리가 될까봐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바꾸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숨이 차서 앞이 흐려지는데도 필사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을 지켜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달리기 경기를 해냈고, 꿈에 그리던 1등 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1등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잘 달렸다”고 칭찬해 주시며 1등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날 처음,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눔의 기쁨도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1교시를 비워두고 나눔 시간을 만드신 선생님은 그 시간만은 열 세 명의 아이들 모두를 선생님으로 만드셨습니다. 남한강의 물과 북한강의 물이 만나 많은 물고기들과 풀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력과 시원함을 나누어주듯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다른 친구에 가르쳐 주는 강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반의 꼬마 국어선생님이었는데, 친구들과 배

운 것을 나누며 국어실력은 물론이고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과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만큼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꿈은 선생님께서 그랬듯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알려주고, 포근히 안아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제 삶에 불을 밝혀주신 선생님이 있었기에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도록,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아이들 옆에서 같이 걸어가셨던 선생님, 이젠 제가 선생님 뒤를 잇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었던 사실에 감사하고, 선생님의 제자여서 행복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황수민 · 경기 와부고등학교 1학년 5반 · 이 글은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

“야, 이 미친년들아!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된 줄 아나. 너희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매일 날 놀리고 괴롭히는데! 내가 학교에 안 오면 다 못된 너희들 때문이다!” 오늘도 저를 놀리는 친구들을 향해 꺽꺽 소리를 지릅니다. 매일 매일이 반복입니다.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이라고 놀려댁니다. 제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듣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몸도 마음도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지만 그것은 확실히 압니다.

강희정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를 많이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장애인이면서 학교는 왜 다녀”라는 놀림을 심하게 당하고 얼굴이 하얀 석고상처럼 굳어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찬찬히 저의 얼굴을 보시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구나. 괜찮아 점점 나아질 거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시련들을 이겨 낼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척 다정하고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힘을 제 마음과 머릿속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곁을 떠나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저에게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고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비록 선생님에게 저는 언제나 몸도 마음도 아픈 제자이지만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저는 첫 번째 제자이자, 영원한 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다 보니, 지난 중학교 일이 어제일인 듯 떠오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의 ‘밥’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작은 소리로 “너희 엄마는 너를 왜 이렇게 낳았어?, 우리보다 11살이나 많다는 애가 몸이 왜 그러냐?”라고 놀리면서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발갱게 달아올라 급기야 붉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고 저는 구석진 계단에 앉아 끼이끼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새 저를 품에 안고 “괜찮아, 아이같이 울면 안 돼.”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울면서 어찌나 껌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제 옆에 앉아 계시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소리 없이 옆에 앉아 다정히 저를 안아 주시고 달래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느 샌가 짠하고 나타나서 저를 위로해 주는 수호천사...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느새 훌쩍 가버려 정말 아쉽게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 곁을 떠나 왔습니다. 그것도 특수학교로 와 버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장애가 심한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아낌 없는 사랑을 간혹 잊어버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제자 같으니...

갑자기 선생님의 포근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 친구들의 칼날 같은 놀림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안나경, 너는 이런 꼴로 학교는 왜 다니니”, “야, 이제 중학생도 다 끝나 가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확 때려 쳐 버리지 그래? 장애인 주제에 학교를 왜 다녀” 지금도 귓가에 쟁

쟁거리는 친구들의 말이 저를 깊이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나경아 괜찮아, 몸이 불편한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도 하면 안 돼. 잘못은 너를 놀리는 동생들이 한 거야. 나경이 기운내자, 힘내.” 라고요.

오늘도 선생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 기억이 가물거리는 그날까지 아니,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제 가슴은 선생님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도 찢어진 날개를 펴려거리며 선생님에게 날아갑니다. 그리움과 보고픔을 가득 안고 날아갑니다.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께로...

안나경 · 부산 솔빛학교 3학년 2반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나를 바꾼 오렌지주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산초등학교 69회 졸업생 김다비입니다. 우연히 학교 복도에서 감사편지쓰기라는 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선생님과 함께 했던 2011년을 떠올리며 편지를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기초 미달 학생이었고,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또래보다 조금 높은 언어 능력과 말하기였습니다. 4학년 때 복산초등학교로 전학 와서 6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의욕 없는 아이’, ‘잘 우는 아이’였습니다. 매사 어설피기만 한 저에게 꿈은 정말 꿈일 뿐이었습니다. “약사가 될 거예요.” 하면 “공부 잘하니?”라는 소리를 늘 들어왔고, 영어과 교수라는 꿈을 가졌을 때에도 주변의 반응은 “넌 안 돼.”였습니다. 매일 저는 꿈이 바뀌었지만 그 누구도 응원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무기력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6학년 겨울, <동물농장>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저는 동물심리치료사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엄마에게 이 꿈을 얘기 했더니 “공부 잘하면 못하는 게 없어.”라는 말을 들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가니 선생님께서 복도에 계셨습니다. 인사를 하니 선생님은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던 저였기에 누군가 반갑게 맞아주는 게 너무 좋아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한날은 선생님께서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소파에 앉혀 놓고 이름과 학번 그리고 꿈을 물으셨습니다. 소심하게 동물심리치료사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은 아주 멋진 꿈이라며 ‘다비는 잘 웃고 인사를 잘하니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오렌지주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칭찬을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렌지주스 정말 싫어하는데 처음으로 칭찬해주신 분이 주신 음료수는 다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응원과 칭찬 덕분인지 저는 꿈 발표 글짓기에서 동물심리치료사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글로 써서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 인생 첫 최우수상이었습니다. 방송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 하지 말고 “미래의 000가 될 000입니다.”라고 하라고 하

셨습니다. 최우수상에 신이 난 저는 “미래의 동물심리치료사가 될 김다비입니다.”하고 큰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꿈이 없는 아이들을 응원해 주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제 인생의 첫 번째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어느새 고2가 되었네요. 물론 지금은 꿈이 그때와 바뀌었지만 예전처럼 제 꿈에 자신 없어 하진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고3이라 친구들이 꿈을 못 찾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듯 응원해주고 도와준 결과,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게 되었고 익명칭찬쓰기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학교생활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 때면 선생님의 응원해주셨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은 결과, 성적 또한 많이 올라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 외에도 친구와 성적 또한 주신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제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제 장래희망은

‘가이드’입니다. 일본 전문 가이드가 되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며 한·일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남을 잘 통솔하여 다닐 수 있게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선생님처럼 응원을 해주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선생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교장실을 안 들어갔다면 전 아마 그때처럼 소심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을 테지요.

앞으로 전 세계의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요.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이드가 되어서 오렌지투스 사들고 선생님 찾아뵈러 꼭 가겠습니다. 그때는 “안녕하세요, 가이드 김다비입니다!”하고 인사를 하겠죠? 그때 저에게 현실이 아닌 칭찬의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롤모델이십니다.

김다비 · 울산 약사고등학교 2학년 8반 · 이 글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자연 속에서 만난 민들레 선생님

민들레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꼬마농부 홍매화 세영이에요. 24절기 노래를 흥겹게 불렀던 그 세영이요. 저는 아직도 선생님 성함을 몰라요. 선생님과 만난 첫날부터 선생님은 가슴에 '민들레' 이름표를 달고 계셨으니까요.

4월 봄. 민들레 선생님과 처음 만났던 날. 따뜻한 햇님이 얼굴을 쭉 내밀던 그 날 우리는 학교화단 식물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식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저는 '홍매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날엔 저희 꼬마농부들에게 쥐눈이콩을 주시며 집에서 직접 키워보게 해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키가 쑥쑥 자라는 콩나물이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답니다. 그 콩나물로 비빔밥과 콩나물국을 만들어 먹었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소만 절기에는 우리들이 키운 범씨를 모판에 심었어요. 그 모판에서 어서 빨리 싹이 나와 벼가 되기를 무척이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무지 더웠던 망종 절기에는 우리가 심었던 수세미싹을 관찰하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자란 내 수세미를 보며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지요. 특히 이날 먹고 남은 앵두씨로 누가 가장 멀리 날리는지 시합했던 일은 정말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짓날에 학교 뒷밭에 나가 봄에 심었던 감자를 캐고 삶아 먹었지요. 뜨끈뜨끈한 감자를 손에 쥐지도 못한 채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선생님 턱에 살아있는 거미와 다름 곤충들을 만져보았던 기억도 아주 생생해요. 처음엔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던 거미를 만져보다니 저 스스로 놀랐어요.

9월, 백로 절기에 배추 모종을 심으며 통통한 배추가 되면 엄마께 갖다드리며 김치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마음먹었던 것도 생각나네요. 신났던 나무 찾기 런닝맨, 밤으로 비석치기, 폴로 협동 제기차기 등의 놀이로 정말 재미있었던 '자연물 가을운동회'. 자연물로 이런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니 이것도 참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협동심도 기르게 되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리가 심은 범씨가 다 자라 추수를 했던 일이에요. 벼를 분리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절구를 이용해 쌀껍질

을 벗겨내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꼬마농부 활동 스크랩북에 차곡차곡 그날의 활동을 담은 그림과 배운 내용, 순간 들었던 생각과 느낌들을 써 놓으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그 스크랩북은 책꽂이에 잘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도 활동북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쓰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 1년 전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매우 소중한 저만의 보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민들레 선생님과 만나며 참 행복했어요. ‘꼬마농부’ 동아리 활동하는 날이 무척 기다려졌어요.

꼬마농부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연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연은 항상 저의 곁에 있었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용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제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분이세요. 제가 작은 풀꽃 하나, 지렁이, 거미 하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학교 꽃밭, 텃밭, 아

파트 앞 화단도 살며시 얼굴을 내밀고 들여다보고 두리번거리게 되었어요. 제가 쉽게 지나쳐버렸던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봄 시작돼요. 입춘~ 얼음 녹고 새싹 터요. 우수~” 매번 수업 시작할 때 불렀던 24절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 노래 덕분에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추분이 지났어요. 그런지 해가 빨리 지기 시작하네요. 저는 요즈음 풍성한 가을 냄새만 맡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간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세영 · 서울 신길초등학교 4학년 1반 · 이 글은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모두가 1등!

선생님, 저 상원이예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 반과 부끄러운 마음 반을 섞어 편지를 써요.

1학년 2학기에 선생님을 만나 한 학기를 함께하고, 선생님은 한 해 더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가셨지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헤어진 뒤로도 글을 읽지 못했어요. 2학년 때는 구구단 암기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벽까지 가로놓여 있어서 저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으로 300만원이 든 제 통장을 쥐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였어요.

선생님은 저보고 걱정 말라고, 곧 글을 땔 거다 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일까, 정말로 그 때가 오긴 올까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글자들은 제 눈 앞에서 날아다니거나 뒤엎켜 버렸고, 더하기는 빼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몸을 바꾸고 숫자들은 숨바꼭질을 해서 저를 골탕 먹이곤 하였어요.

선생님은 한글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반 아이들 모두에게 시험 문제를 읽어주셨고 제가 평균 90점을 받았지요. 선생님한테 듣고 배운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날마다 암송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제가 2학년이 되고서 없던 일처럼 되었어요. 2학년이 되어 저는

학습 부진아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저 같은 학생을 두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친구들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저에게 물감 끈 물이 담긴 물통을 부었고, 교실에서는 저를 바보라고 놀리며 웃었어요.

저에게 남은 힘이 다 빠져나가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마저 꼴 보기 싫은 때, 갑자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상원이는 우리 반 그림 1등!”

선생님은 언제나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화가라는 별명까지 얻었지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날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토씨를 빼먹고 쓰고 받침이나 띄어쓰기가 틀리고 앞뒤 낱말을 바꿔 쓰기 일쑤였지만, 어느새 저는 책을 가장 많이 읽고 글을 가장 많이 쓰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줄곧 독서왕으로 뽑혔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2등을 하였어요. 초등 6년을 통틀어 최고 점수를 받은 그날,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지요. 고학년이 되면 뒤바뀐다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되었

어요. 기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화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가 거름이 되어 제가 미술영재로 뽑혔어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만을 강조하는데, 선생님은 모두에게 저마다 잘하는 점을 칭찬해 주셨지요.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1등이 참 많았어요. 공부 1등, 그림 1등, 발표 1등, 노래 1등.... 이렇게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한 가지씩은 있는 줄 알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공부밖에 없다는 말은 틀린 줄도 알아요. 오랫동안 앞서가는 아이들 뒤에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 뒤쳐지는 친구들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듯이 저 같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게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어 주신 용기와 배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게요. 선생님은 저에게 초등학교 여섯 해를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 학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상원 · 강원 만대초등학교 6학년 4반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이 곤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슈퍼맨처럼 달려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김계자 선생님

경남 진현초등학교 4학년 2반 김도연

그 시절, 모두가 잊지 못할
슈퍼맨

서울 을지중학교 2학년 6반 김기범

잊지 못할 4학년을 선물해준
최선화 선생님께

서울 미아초등학교 5학년 7반 문채원

비로소 찾은 진정한 나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1학년 6반 김민석

민준이가 우리 반 에이스!

부산 주례초등학교 4학년 2반 김민준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김계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도연이에요. 선생님과 즐겁게 생활했던 3학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 1학기가 끝나 2학기가 되었어요. 요즘은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라 그런지 즐겁게 생활하던 중에도 문득 선생님이 너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 3학년 종업식 날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엉엉 울었잖아요.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고 혹시 4학년에 올라가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안 되시더라도 매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뵈 수 있으니 많이 속상해하지 말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 저는 2학년 때까지 부끄럼이 많고 소심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런 제가 선생님과 생활한 1년 동안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어찌다 용기 내어 발표를 하면 선생님은 저를 정말 많

이 칭찬해 주셨지요. 전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를 하는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또 공부뿐 아니라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포도송이가 그려진 종이에 칭찬스티커를 다 붙여서 포도 한 송이가 완성될 때마다 예쁜 꽃이 심어진 조그만 화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싶어 더 열심히 숙제도 하고 일기도 쓰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 결과 우리 반에서 제일 처음으로 포도송이 20장을 모았고, 선생님께 ‘루비목걸이’라는 예쁜 다육식물이 심어져 있는 큰 화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장미허브, 불로초, 수 등 조그만 화분들과 루비목걸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에 물을 주며 선생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선생님, 제 꿈이 선생님인거 아시죠? 원래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로 바뀌었어요. 3학년 공개수업 때 저에게 “도연이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니 꼭 너의 꿈인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막연히 꿈으로만 생각했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꼭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께 사랑하고 칭찬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진주성에 서 개최된 우리 지역 축제 ‘논개제’ 행사 중에 제 3회 진주시 학생 한자 골든벨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초등부 장원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해 주셨을까요? 일어나서 발표도 제대로 못하던 도연이가 진주 초등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그 대회에 용기 있게 출전해 장원을 했다고 칭찬을 듬뿍 해주셨을 거예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예요.

선생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세종대왕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도 존경하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선생님이예요. 커서 꼭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한 저에게 한없는 사랑과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듯 저도 선생님께 배운 대로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선

생님이 될게요. 선생님, 앞으로 제가 커가면서 선생님을 또 만나서 선생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 테니 선생님께서도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멀리서나마 지켜봐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집에서는 엄마가 계시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엄마라고 생각해.”라고, 우리 엄마 같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김도연 · 경남 집현초등학교 4학년 2반 · 이 글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그 시절, 모두가 잊지 못할 슈퍼맨

저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류동일 선생님입니다.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이 곤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슈퍼맨처럼 달려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기 좋고 풍경이 아름다운 명문 화랑초등학교였는데 주위가 온통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변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연못과 넓은 정자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정자에 둘러 앉아 선생님께서 연주하는 기타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야외에서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선생님은 직접 만드신 노래들을 가르쳐 주시는 등 딱딱하고 지겨운 이론 수업이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합창을 하게 해 주시거나 동요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신 결과, 저와 친구들은 방송국에 동요 대회까지 나가 인기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했고 상까지 받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은 항

상 노래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다른 반 친구들은 항상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실 학기 초에는 소심한 성격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고 눈도 깜빡거리는 틱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 잘 한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니 더하기 빼기도 서툴고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수학 백점을 맞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김기범 1등”이라고 외쳐 주신 선생님 덕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느끼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수학경시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수상을 하게 되어서 수학은 제게 가장 수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 명 한 명 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 우리 반 남자 아이들은 항상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바탕 놀이를 하고 돌아오면 기분도 상쾌하고 수업에도 활

기차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만 좋아하고 저만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저만큼이나 선생님을 좋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3학년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또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선생님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갑게 맞아 주시고 편식이 심했던 제게 점심시간이 되면 옆에 앉으셔서 남기지 말고 모두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중학교에 가서도 기쁜 소식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선생님께 전해 드렸는데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들어진 중창단이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카네이션도 사드리고 커다란 편지지에 한 명 한 명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드리곤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편지도

써서 드릴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을 보면 왜 자꾸 선생님이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아직 장래 희망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두었다가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상상해봅니다. 늘 수줍고 소심해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주눅이 들었던 꼬맹이가 지금은 반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계시겠지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분이요 아름다우신 멘토이십니다.

김기범 · 서울 을지중학교 2학년 6반 · 이 글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잊지 못할 4학년을 선물해준 최선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최선화 선생님. 저 문채원이예요. 신문에서 선생님께 편지 쓰기 광고를 보고 그동안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5학년이 되어보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친구관계예요. 요즘은 학교가기 싫을 정도로 친구관계가 어렵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나한테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는데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끼리끼리 나가서 놀니다. 그럼 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문득 작년엔 어떻게 지냈지? 생각해 보니 최선화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선생님은 모둠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 중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홀라후프 춤 발표회가 기억이 나요. 같은 조원끼리 함께 곡을 정하고 동작을 하나하나 같이 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발표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또 우리 가족이 1박 2일간 가족여행을 가기 전날 잘 다녀오라며 한

라봉을 선물로 주신 선생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뿐만 아니라, 매일 칭찬통장을 체크해서 그 도장 수만큼 학기말에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로 바꾸어 주신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학예회 때 카드섹션 한 것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음악에 맞추어 우리 반 아이들이 10명씩 3줄로 서서 마치 커다란 스케치북인 것처럼 그림을 넘기는 거 말이에요. 신체 건강한 아이들도 힘들다고 불평하며 제대로 못했던 카드섹션을 장애인인 제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반이 31명이라 저는 두 번째 줄 끝에 휠체어에 앉아 연습을 했지요.

저는 다리도 불편하지만 손가락 사용도 불편해서 한손으로 스케치북을 잡고 다른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케치북을 한 장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고 어찌다 한 장을 잡더라도 힘 조절이 잘 안 되어 찢어지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음악에 맞추어 스케치북을 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연습 때마다 제 옆에 오셔서 “채원아 할 수 있어. 한 번 넘겨보자.” 하시며 연습

을 시키셨잖아요. 선생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속상했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매일 학교 후 재활치료를 가는 틈틈이 집에서 엄마와 계획을 짜서 음악을 틀고 연습했어요. 제가 허리를 자꾸 숙여서 스케치북이 관중석에 안 보이니까 박스를 가슴에 대고 짝퉁이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스케치북을 붙였지요. 또 스케치북이 자꾸 찢어져 각 장마다 비닐로 씌우고, 스케치북도 한 장씩 넘기기 위해 각 장마다 짝퉁이를 붙여 손가락이 들어갈 홈도 만들고, 한 장을 넘길 때 다른 장은 고정되도록 저만의 카드섹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연습하고 실수하고 또 연습해서 드디어 무대에 서는 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긴장도 됐지만 차분히 연습한 대로 한 결과 실수 없이 음악에 맞추어 카드섹션을 할 수 있었어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많은 함성과 박수소리에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 영상을 저의 물리치료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저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을 했다면서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최선화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전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런 기분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4학년울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응원 늘 잊지 않겠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요리사가 되면 꼭 선생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문채원 · 서울 미아초등학교 5학년 7반 · 이 글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비로소 찾은 진정한 나

김경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민석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중학교를 떠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맘때면 학교 정문에 은행나무가 한창 익어가고 있겠네요. 선생님은 건강히 잘 계십니까? 기침을 달고 사시던 분이래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면 혹시 또 감기라도 걸리셨을까 걱정됩니다. 학생들한테 웃으면 안 된다며 늘 퐁퐁 싸매고 다니시던 까만 목도리는 여전히 하고 다니십니까?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도, 가끔 회초리로 교탁을 탕탕 쳐가며 저희를 조용히 시키셨던 그 모습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우리 반이 1등 했다며 피자를 잔뜩 사오시던 그 모습도 모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중학교 2학년. ‘중 2병’이라며 예민한 시기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혼란과 방황으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이른 사춘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일본인이냐

고 물어보는 친구들의 질문에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어 부모님께도 몇 번이나 “일본에서 태어나면 다 일본사람이야?”라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오면 “태어나긴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라서 나도 한국인이야”라고 서투른 영어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혼란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제 또래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으로 머리를 싸매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그저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새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도 안돼서 선생님들의 ‘특별 레이더망 1순위’가 되었습니다. 딱히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고 늘 시큰둥하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탓이겠지요.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선생님은 남아서 상담이나 하자며 집에 가려던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툭툭한 인상에 끌렸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제 고민에 누군가 귀기울여준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였을까요. 그전까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었습니다. 선

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가슴 시원한 조언을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를 우리 민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쉽사리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저에게 선생님의 ‘우리’라는 따뜻한 울림은 제게도 속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큰 의미 없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배려마저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내성적이고 어둡던 성격도 조금씩 활발하게 변했고, 콤플렉스 같던 해외경력도 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그렇게 늘 뼈딴선을 타던 제게도 국제아동상담사라는 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 살다 와서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 자기가 누군지 몰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제가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니까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만큼이나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여전히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부끄러운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민석도, 일본의 키무 민소쿠도, 미국의 알렉스 김도 모두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태껏 오글거린다고 다정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마음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고등학생도 되었으니 은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김경태 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준이가 우리 반 에이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민준이에요.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저는 4학년 들어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 매일 축구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던 3월의 첫 등교일이 선생님과 첫 만남이었지요. 자그마한 체구에 또랑또랑한 목소리, 꼭 달힌 입모양이 조금은 차가워 보이던 게 선생님의 첫인상이었어요. 일 년 동안 좀 딱딱하게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하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과 일 년을 보내고도 시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생 누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항상 일찍 갔는데 제가 아무리 일찍 학교에 가도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실에 도착해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덕분에 저의 하루는 항상 기분 좋게 시작했답니다. 또 비염이 있어서 항상 재채기와 콧물을 달고 사는 저에게 혹시 감기냐고 괜찮냐고 늘 물어봐주셨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선생님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 고열이 계속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일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날 선생님께선 장화에 우산을 손에 들고 음료수를 사 오셨기 때문에 비가 온 날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 머리를 쓱 쓸어주시며 “아프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민준이가 우리 반 에이스라며 칭찬해주셨을 때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3학년 4반은 일 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늘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 있었고, 한 친구가 던진 책에 교실 유리창이 깨어지기도 했고 선생님께도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속 터지는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모든 학생들 개개인에게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부산시영재교육진흥원에서 선발하는 영재선발에 수학영재로 지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영재로 선발된 것은 아

니지만 평범하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도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늘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틈날 때마다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은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고, 또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으니까요. 꼭 영재가 되어서 기쁜 소식을 선생님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같이요. 선생님께서 계속 학교에 계시면 좋겠는데 작년 우리 반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그만 두셔서 정말 속상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갑자기 그만두셔서 많이 궁금하고 섭섭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늘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같이 계실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민준 · 부산 주례초등학교 4학년 2반 · 이 글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화양연화의 뜻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화양연화였어요.

모든 장애 학생을 대신해
전하는 말

대구 보명학교 3학년 3반 나혜리

마음으로 날아주신
아버지께

대구 화동초등학교 6학년 1반 육영진

조금 천천히 걸어도 돼

인천 원당고등학교 3학년 7반 김희연

최고로 인자하신
최인자 선생님!

인천 정각초등학교 1학년 4반 조윤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인연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4반 문예진

모든 장애 학생을 대신해 전하는 말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보명학교에 어제 같이 입학한 것 같은데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고등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구 보명학교에 입학할 때 엄마께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특수학교에 입학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부 때는 고집이 무척 셧습니다. 교실 바닥에 드러눕고 머리카락 뽑고 떼쓰고 짜증내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속도 많이 상하게 해드렸지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선 인상 한 번 안 쓰시고 다 받아주셨고 편식이 심했던 제게 밥숟가락에 채소 반찬을 얹어 주셨고 울 때는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저 뿐만 아니라 계속 혼잣말하는 친구, 한 번씩 대소변 실수를 하는 친구,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친구, 소리 지르는 친구, 말 못 하는 친구 등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와 친구들을 매일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선생님.

보다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픈 선생님이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역도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을 때는 뽀뽀 기뻐해 주시던 선생님.

눈이 억수로 내리던 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 택시로 저희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20분이면 오던 길을 2시간이나 걸려서 오는 데도, 저보고 피곤하니 자라고 하시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지요. 아직 생리를 해도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여행하시는 내내 신경을 쓰시고 팬티, 양말 안 가져온 친구를 위해 팬티와 양말을 사주시고 한 학생이라도 길을 잃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늘 긴장을 하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던 선생님.

비가 내리면 비를 맞을까 우산을 이리 썩라 저리 썩라 말씀 하시며 챙겨주시던 모습. 샤워 할 때도 같이 욕실에 들어가셔서 씻어주시고 잠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저희랑 주무시다가도 이불 덮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엄마와 같습니다.

전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12년 동안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너무 슬퍼서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인내로,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웃어주시는 대구 보명학교 선생님. 장애가 있어 비록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도 유명한 사람도 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라도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표현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 저이지만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편지를 씁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고 바다 같다고 하지요. 대구보명학교 선생님들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P.S. 이 편지를 쓴 헤리의 엄마입니다.

제 딸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일부 선생님들의 큰 잘못으로 모든 선생님들까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싫어서 헤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였

습니다. 고생하시는 전국의 특수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혜리 · 대구 보명학교 3학년 3반 · 이 글은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마음으로 낳아주신 아버지께

‘아버지’하면 저는 최광일 선생님이 떠올라요.

선생님께서서는 정말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시고, 저를 ‘사람’으로 완성시켜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신 최광일 선생님께 이 편지를 바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벌써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언제나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해주신 최광일 선생님의 은혜는 어떤 일으로라도 갚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작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3학년 때 선생님을 처음 담임 선생님이 되게 되었지요. 첫날에는 존경하였던 선생님의 반이 되지 않아서 뽀루뽀 하던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며 인상을 찌푸리지 말라고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비눗방울처럼 떠다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당뇨라는 병이 있었는데, 수업시간에도 저의 낮빛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에게 괜찮은지 여쭙어봐 주시고, 체육 시간만 되면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며 작은 ‘마이썸’ 하나를 꼭 쥐어주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선

생님께서 주신 마이썸을 먹으니 험크와 힘 대결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마이썸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 아껴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회탈 같은 따뜻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영진아 뭐 일 있나? 허리 딱 펴고! 힘내라.”라고 해주시는 최광일 선생님. 선생님은 제 기억의 절반을 차지하고 계세요.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거나 상을 받을 때마다 그 영광 뒤에는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항상 말없이 도와주시고, 선생님께 기쁜 소식이 있다며 자랑을 하면 미소를 머금으신 채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상들은 모두 선생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었던 5학년 때,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쉼 새 없이 몰아치는 비바

람이며, 메마른 사막들의 고비를 함께 건너 주셨죠. 너무나 변해버리고, 이전의 순수함도 잃어버린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던 선생님의 마음, 눈빛... 그것을 느낄 때 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친구처럼 대해 주셨지요.

친구들의 기대, 성적이 좋아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잠시 틱 장애도 생겼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그런 저를 알아봐주셨어요. 바쁘신 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성적 별 거 아니라며 위로해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때로는 채찍을 주시기도 하셨죠. 선생님은 친구 같은, 친구보다 더 편한 선생님이셨어요. 오죽하면 선생님께 별을 받는 것이 행복했다니까요! 편하게 대하다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례하고 죄송한 말들과 행동들이 많았는데, 그것까지 모두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다루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맞다, 혹시 선생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아세요? 화양연화의 뜻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선

생님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때 순간마다 화양연화였어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친구보다 편하고 장난칠 수 있는 친구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마음으로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멋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인생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영진 · 대구 화동초등학교 6학년 1반 · 이 글은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희연이에요. 작년까지 선생님께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쑥스럽다는 이유로 진솔하게 표현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내용이 많이 서툴겠지만, 진심이니 제 마음이 선생님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고, 과정보다는 목표만을 보고 달려 나가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결과만을 보고 제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 너 참 잘 해내고 있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부족하네!’라고 채찍질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제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도 1학년이니까, 앞으로 노력할 날들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 말에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 대해 뒷담화를 하며, 마치 거짓을 사실인 양 말할 때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단지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제 소망이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

요?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난 뒤 ‘교사가 되어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생겼어요.

그 후, 2학년에 올라와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되었어요. 그 때까지도 저는 트라우마를 벗지 못했고, 1학년 때의 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께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저희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 선생님은 내가 믿고 말해도 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희연아, 요즘에 힘든 일 있어? 많이 지쳐 보인다.”라는 말을 해주셨죠.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했을 때도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보며, ‘저 분은 내 롤모델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싶었을 때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또래 상담사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2학년 때 ‘역사 교사’라는 꿈을 가졌을 때에도, 역사과는 임용

이 어렵다며 주위에서 반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때에도 선생님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꼭 역사 교사가 되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좋은 말씀들 덕분인지, 2학년 때는 더 큰 중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2016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10대의 마지막에 서서 12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2015년의 봄을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고 제 자신이 180° 변화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삶은 많이 변화했어요. 선생님을 보며 나중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기댈 수 있는 나무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경기도로 전근가시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마지막 편지 기억하세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 함께 걸어 가며 ‘더불어 잘 사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교사

가 되어 아이들에게 돈, 명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정동훈 선생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이 옆에 계셔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좋은 역사교사가 되어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김희연 · 인천 원당고등학교 3학년 7반 · 이 글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최고로 인자하신 최인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윤슬이에요.

털털털 चु고, 호~ 하면 하얀 입김이 나와서 아빠랑 장난치던 입학식 날, 선생님을 처음으로 뵈었어요. 처음으로 학교 가던 날, 처음 오는 교실, 잘 모르는 친구들과 선생님 사이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되었어요.

앞으로 엄마는 집에, 저는 학교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학교 가는 길에 자꾸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도 찼끔 나왔지만 꾸욱 참았어요.

학교에서 밥을 먹던 첫 날이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처음 오는 급식실에서 밥을 많이 줄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지 정말 두근거렸는데, 한 두 숟가락 먹고 저는 아침 먹은 것까지 다 울각~ 하고 토해버렸어요. 토해서 슬프고 목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으앙”하고 울었는데,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괜찮아, 윤슬아? 속이 조금 안 좋았나보구나. 아프지 않니?” 하고 다정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따뜻해서 선생님이 엄마같이 느껴져 마음이 편해졌어요. 토해서 속이 시원해진 건

지 선생님이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점점 학교에서 밥 먹는 것도, 학교에서 처음 가보는 과학실, 컴퓨터실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 때 그 일이 저에겐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실수할 땐 괜찮다고 기다려주시고 용기 주시는 최인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에겐 우리 최인자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인자하신 선생님이세요. 1학년 4반 친구들도 다 선생님을 많이 좋아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신나는 겨울방학이 다가와서 기대도 되고 기다려지는데, 조금 더 지나 2학년이 되면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돼서 마음이 안 좋고,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2학년 때도 우리 반 선생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조윤슬 · 인천 정각초등학교 1학년 4반 · 이 글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인연

선생님! 저 선생님의 2년 동안 제자였던 예진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크게 변화될 만큼 많은 것을 받아 왔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한국사를 가르쳐 주셨고, 역사스터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한국사가 재밌는 한 권의 소설책 같게 느껴져 한국사 자격증 시험 준비가 즐거울 만큼 한국사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삼성꿈장학재단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만을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정작 베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꿈장학재단 장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반 친구들과 함께 2년 동안 '청소년 몰래 산타 봉사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봉사가 선생님은 뵙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시간을 채워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게 된 후 봉사활동이 내 도움으로 누군가가 기뻐한 것보다 몇 배의 뿌듯함으로 제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 주말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4시간씩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에 들어가 학교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매우 성격이 소심했는데 장학생이 되고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자기 성장 기록장'을 통해 한 달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한 달을 많은 것을 도전해보며 계획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며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시 쓰는 일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시작부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저 혼자였더라면 제가 시 쓰기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시를 보고 국어 선생님께서 매우 감동을 받아 메신저에 올리셨는데 그것을 보고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심했던 성격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동기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운명이 수도 없이 바뀌는 곳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뭉든 피해 가려던 제 인생이 무엇이든 먼저 도전해보자

는 당당함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선 저희 할머니께서 두 번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도 와주시고, 항상 제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또, 오빠는 군인생활 잘하고 있는지, 저희 아빠 허리는 많이 나아지셨는지 가족처럼 저희 가족 모두를 걱정해주셨습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그리움을 선생님의 푸근한 정이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 멘토 활동 때 많은 고민을 이야기 했더니 선생님께서 도움이 되지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자체로 제게는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초가 환하게 쬐지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느끼는 감사함은 이 짧은 편지로 전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항상 찾아뵈면 엄마를 보러온 기분이 들어서 참 푸근하고 울컥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작은 자랑거리라도 생기면 선생님께 자랑해 조금이라도 예쁨 받고 싶은, 키만 크고 마음은 여

린 제자랍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더욱 자주 찾아뵈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 저는 시집을 출판해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고, 해외봉사 활동을 다니며 제가 받았던 배움을 돌려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목표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같은 박혜미 선생님♡

문예진 ·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4반 · 이 글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 위에서

선생님과 나란히 걷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사탕 한 통에 담긴 말

대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4반 김현일

언니 오빠를 먼저 사랑할게요!

대전 중촌초등학교 6학년 2반 박소현

못 해도, 안 예뻐도 모두 내 제자

울산 서생중학교 1학년 3반 민승현

우리 사이는 어미새와 아기새 같아요

울산 동백초등학교 6학년 4반 김민혁

예의를 접시에 담는 법

세종 성남고등학교 2학년 1반 전세영

사탕 한 통에 담긴 말

선생님 안녕하세요? 2년 동안 대안교실에서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과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김현일입니다. 1학년 때 처음 대안교실 면접을 볼 때 너무나도 환하고 밝게 웃는 얼굴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셨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토록 아껴주고 정성스레 보듬어 주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운동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의 뛰어난 인재들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들 속에서 실망감과 허무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던 제가 이곳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 와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김은형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대안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안겨도 보았고 ‘사랑한다’라는 진심어린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항상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학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였던 제가 학교를 좋아하게 되었고 ‘교실’에 가고 싶어졌습

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은형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대안교실 활동은 매사에 소극적이었던 저를 먼저 나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학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체험학습들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 밖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은 듣지 않고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던 저에게 진심어린 사랑이 담긴 호된 꾸짖음으로 저를 변화하게 만들어주셨던 김은형 선생님….

언젠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교실에 들어가는 길에 김은형 선생님과 마주쳤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담배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담배를 반납하니 그 자리에서 담배를 뭉개버리신 채 학생부로 데려가서 사탕 한 통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속 빠지게 혼이 났지요. 10장의 반성문을 쓰고 그 안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나씩 하나씩 억지로 머릿속에서 쥐어짜내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2학년 때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실수를 범하였을 때 학교에서 받을 징계로 벌벌 떨어지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과는 별도로, 공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일에는 항상 예외 없이 징계 처리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정말 변화할 수 있었고 김은형 선생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따뜻함 속에서 학교생활을 한다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 대안교실은 사라졌고, 저를 호되게 혼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김은형 선생님은 대전의 타 고등학교로 가셨습니다. 김은형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셨을 때 선생님 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질질 짜지 말라고 하셨던 선생님 말씀이 기억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찾아들지 않아 그대로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은형 선생님이 가시고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대덕전자기계공업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성실히 취득하고 이제 곧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학교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 2학년 때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고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형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은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은형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졸업하고 멋진 직장인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김현일 · 대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4반 · 이 글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언니 오빠를 먼저 사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학습도움실 선생님. 전 3월 달에 전학 온 박소현이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으로 인해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네요.

선생님께 편지를 쓴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저의 꿈을 가지게 해주신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꿈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엔 재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생각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친구죠. 하지만 재영이가 저의 짝꿍 되어서 이후로 선생님을 자주 뵙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매일 보면서 느꼈습니다. 선생님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고요.

저에게도 언니 오빠가 있는데, 둘 다 장애인입니다. 저 혼자 멀쩡해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든든한 친구, 언니, 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언니나 오빠처럼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더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 재영이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을 뵈어 꿈을 가지게 된 것

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에겐 딱 맞는 꿈인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라는 꿈을 진짜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룬다면 장애인 아이들, 친구들을 사랑과 희망, 소중함으로 늘 아끼며 사랑으로 가르쳐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꿈을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오빠를 엄청 싫어하는데 특수교사가 되려면 기초부터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언니와 오빠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겠습니다.

박소현 · 대전 중촌초등학교 6학년 2반 · 이 글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못 해도, 안 예뻐도 모두 내 제자

이경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4 온양초 5학년 4반 반장이었던 민승현입니다. 선생님 귀여운 아가는 잘 크고 있겠죠? 이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빌어서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 “나보다는 너, 너보다는 우리.” 이 말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항상 저희에게 해주시던 말씀이고, 저희 역시 입이 부르터라 외치던 말이었죠. 아직도 선생님의 말씀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네요. 선생님 임신 때문에 얼굴 한 번 뵙지 못하고 온양초를 졸업해버렸지만요.

아! 저 선생님께 사랑할 말이 있어요. 저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배치고사 때 전교 1등으로 서생중학교에 들어왔답니다! 기숙사 생활로 친구들과 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되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양초 친구들이 없어 외로웠던 이 학교에서 나보다는 너, 너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이 구호를 들려주니까 친구들이 ‘까르르’ 웃기도 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졸업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온양초등학교에

서 남창중학교가 아닌 서생중학교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2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적응을 잘한 이유, 모두 선생님 덕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연락드렸을 때 “역시 승현이라면 잘될 줄 알았어!”라고 말씀해주셨죠. 선생님은 제가 5학년 때도 항상 제게 잘해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얼른 쉬고 싶으셨을텐데도 제가 조잘거리는 것, 수다 떠는 것 다 들어주시고 상냥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역사 수업하실 때마다 PPT도, 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수업을 들었던 탓에 한국사는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요(애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러 와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해 가장 좋게 기억을 가진 이유는 바로 그 누구보다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던 날, 선생님이 해주신 여러 이야기가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하버드생의 목표와 연봉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금붕어, 망각곡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

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그때 선생님이 “난 공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신 선생님은 처음은 아니기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과연 그럴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선생님만큼 공정하신 선생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숙제 안한 애들이 교실 뒤에서 폴짝거리던 모습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선생님의 별은 부끄럽거나 짜증나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셨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셨으니까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해주신 노트필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중학교에 와서 노트필기를 시작했는데 2학기 중간은 18등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좋다고 할 순 있었지만, 공을 들인 노트필기에 비하면 만족할 순 없었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길을 골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공부했죠. 그러자 성적이 상승곡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6등이에요!

이경은 선생님, 하고 되뇌어만 보아도 기분 좋아지는 이름.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

니, 잊을 수 없어요. 저와 계속 연락해서 언젠가 제가 훌륭한 어른이 되었을 때, 선생님을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다음에 다시 편지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민승현 · 울산 서생중학교 1학년 3반 · 이 글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우리 사이는 어미새와 아기새 같아요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을 합쳐 총 여덟 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며 이제 곧 몇 달 후면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란 말을 듣는 중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싶은 지금의 저희 담임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소홀함이 없이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며 배려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초등학교 6학년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평등의 아이콘’이신 멋진 우리 선생님, 권양순 선생님.

선생님은 부지런 하시고 애살(애교)이 많으시기로 소문날 만큼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솔선수범 하십니다. 멋지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만난 나와 우리반 친구들은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생각만 해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니,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자신감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든지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멋진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부지런히 사냥을 하듯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시켜주시려고 여기 저기 보고서를 보내시고, 기회를 얻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느라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란 단어가 딱 맞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얼마 후면 선생님의 품을 떠나지만 앞으로 저희와 같이,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필요한 후배들을 위해

더욱 건강하셔서 선생님의 해피 바이러스와 사랑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6학년 4반 꿈나무 중 한 그루인 멋진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싶은 우리 선생님, 늘 건강 조심하세요!

김민혁 · 울산 동백초등학교 6학년 4반 · 이 글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예의를 접시에 담는 법

선생님,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향긋한 꽃 냄새 배달부이던 봄 해님은 벌써 멀리 피서를 가버리고, 시원한 바다공기 배달부인 여름 해님은 올해에 미련이 남은건지 아직까지도 솟아 넘치는 힘을 불끈 불끈 내뿜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로 이런 욕심쟁이 여름 해님 만행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대구 소식을 전해 들으면 선생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아직도 “뭐라꼬~ 뭐라꼬~”를 연발하시며 반 학생들과 장난을 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하다보면 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선생님과 저와의 공백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겠죠.

선생님! 이제 저희의 얼굴을 보면 보들보들한 솜털보다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여드름이 더 눈에 띕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짧게 줄인 가방 끈을 부여잡고 집에 가던 아이들이, 이젠 하늘이 깜깜한 어둠과 별의 조각보로 완전하게 덮일 때까지도 의자에 엉덩이를 꼭 붙이고 앉아있습니다. 저 또한 나태함의 마음은 꼭꼭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괜히 마음가짐이 약해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곤 했지요. 하지만 내 나이 때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겠지, 선생님은 꼭 참고 이겨 내셨을거야, 생각하며 금방 힘을 내곤 합니다. 선생님은 5학년 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십니다.

그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길게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발머리를 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아침부터 울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반 친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단발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셨지요. 저는 그 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무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발머리이든 긴 머리가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날 꽤 여러 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자르고 온 이유를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매주 학교 가는 토요일 날 요리 대회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협력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그 때, 우리 모듬은 완성된 요리를 담은 접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른 조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고, 다른 모듬 친구가 “접시가 많이 지저분한데 그래도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시간이 없었던 저희는 “아무거나 괜찮으니깐 얼른 쥐.”라는 대답과 함께 접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음식을 담은 접시였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우리 모듬의 샌드위치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모듬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 이유를요. 그리고 요리대회가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모듬장이었던 저를 부르셨고, 저를 타이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 예의는 필요한 것이라고. 선생님께 지저분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드리려고 했던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샌드위치 드리기도 전에 모듬친구들과 허기짐을 핑계 삼아 음식을 먹은 사실도 함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요리대회에서 꼴찌를 했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깨달음을 선생님께 선물 받았지요.

선생님!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엔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바른 행동을 할 때엔 진심을 담아 칭찬해주고 쓰다듬어 주시던 김한나 선

생님, 많이 그립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의 선생님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절망이란 먹구름도 보고 희망이란 예쁜 꽃도 보았지요. 하지만 저는 묵묵하게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비록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온몸이 젖더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눈두렁을 구르더라도 굳건히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 위에서 선생님과 나란히 걷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선생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부디 건강 꼭 챙기시기를,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선생님의 걸음 행복이 머무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세영 · 세종 성남고등학교 2학년 1반 · 이 글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아직은 작은 꿈나무이지만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그루의 멋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편견 속에서 싹튼 우정
경기 안법고등학교 1학년 6반 최고은

낙엽 한 장, 새싹 한 뿌리에서
사랑을 배우다
경기 심석초등학교 4학년 국화반 박호원

괴짜 제자의 고백
강원 동해동호초등학교 3학년 2반 차용훈

아빠이자 선생님의
딸내미가
충북 오창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유진

맛있는 반찬들,
호텔 스테이크로 갚을게요!
충남 천안여자중학교 3학년 3반 윤애령

편견 속에서 싹튼 우정

2011년에 안성초등학교 5학년 4반 담임을 맡으셨던 이재령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저 반장이었던 최고은이에요.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선생님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선생님이 떠오르더군요. 선생님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 때 우리 반에는 ‘유정은’이라는 아이가 있었지요. 선생님께서 무척이나 아끼셨던 제자였는데, 기억하시죠? 정은이는 그림이면 그림, 악기면 악기, 심지어 공부까지 잘 하던 아이였어요. 단, 말이 어눌한 게 흠이었죠. 그리고 정은이는 아버지를 여의고 터미널에서 껌을 파시는 어머니와 언니를 포함해 3명이서 산다는 얘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떠돌았어요.

제게, 정은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소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경기도 수원시 탑동 아이스링크장이었어요. 친구들과 부푼 마음을 안고 스케이트 날을 빙판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선생님께서 조용히 절 부르셨죠. 정은이와 같이 스케이트를 타 달라고 부탁하셨고요.

처음엔 전혀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그 아이와 놀았다가 제가 도리어 따돌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선생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정은이와 손을 잡았죠. 한참 달리는 동안, 실수로 정은이의 손을 놓쳤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뒤에 따라붙던 한 아이와 충돌했습니다. 전 그대로 손을 짚은 채로 넘어졌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전기가 어깨까지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양호실에서 얼음 찜질을 한 지 10분 쯤 흘렀을 때, 슬슬 친구들의 시선이 빙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까지 놀러 왔는데 양호실에 앉아만 있기엔 시간이 아까운 거였죠. 한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은아, 있잖아...” 전 이미 눈치를 챈 터라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신나게 놀아. 난 괜찮아.”

그렇게 창 너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본지 5분 쯤 흘렀을까요. 그 때 ‘끼이익’ 하며 양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 양호실 뺨이 오신 줄

알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 사람의 키는 예상보다 한 뼘 정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은이가 말이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제가 정은이한테 왜 우냐고 묻자, 정은이는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말했습니다. 잘 알아듣긴 힘들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네가 다쳤다고. 다치는 바람에 놀지도 못 한다고.

정작 당사자인 전 정은이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토록 서럽게 울며 절 걱정해주니 저도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괜찮아. 가서 놀아.” 하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정은이는 고개를 좌우로 휘저었고 그 대신 앉아있는 제 앞에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스케이트화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치자마자 절 쫓아왔지만 자신을 찌러보며 양호실로 들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 문 밖에 계속 서 있었다는 이야기 등... 우린 지난 10개월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은이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마음이 잘 맞고 또래 친구들보다 한층 더 생각이 깊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에서 절 따로 부르셔서 채근담의 한 구절을 보여주셨죠.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선생님은 제가 정은이에게 만들어준 추억이 어찌면 정은이의 학교생활에서 처음으로 맞는 봄바람이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니 봄바람을 맞은 건 정은이가 아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인 ‘배려심’을 얻게 되었어요.

아, 선생님. 지금 제 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꿈은 방송PD가 되어서 장애인, 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의 힘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뒤 방송 프로그램의 엔딩 크레딧을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럼 선생님, 뽀 낄을 기약하며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곧 있으면 복지관에 가서 장애인 친구들과 요리하러 가야 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최고은 · 경기 안법고등학교 1학년 6반 · 이 글은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낙엽 한 장, 새싹 한 뿌리에서 사랑을 배우다

이숙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호원이에요. 얼마 전 학교에서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감나무를 쳐다보는데 3년 전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감나무에 마지막 몇 개 남은 감은 까치밥이라고 말씀해주셨던 선생님, 학교 화단에 돌아난 작은 새싹에게도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선생님! 살아있는 작은 생명에게도 사랑을 주시던 선생님은 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되어 우왕좌왕하던 우리들을 커다란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고, 느리고, 부끄러움 많던 저를 선생님은 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신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제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엄마처럼 살피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건강이 다시 안 좋아져서 재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처음에는 수술을 다시 받는다는 소리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신장 수술을 받았을 때 너무 아팠던 게 생각이 나서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선생님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생각났어요. 3년 전 많이 힘들었던 때, 저를 바라보아 주시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반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얼굴 색깔도 어둡고, 교실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행동은 느릿느릿하던 아이였잖아요. 가끔 그런 저를 보고 놀리거나 저에게 짓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안 보이는 책상 밑에서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쳐대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 만났던 어떤 친구는 장난을 치는 거라면서 거칠게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고 스스로 못하는 게 많은 아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선생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쓴 일기와 동시가 남다르다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시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글을 잘 쓰는 줄을 몰랐는데,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나니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책도 더 많이 읽고,

생각도 더 깊이 하면서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칭찬으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1학년 생활을 끝내고 그 뒤로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 아이 들이 추천해서 받은 모범상을 받았을 때, 또 3학년이 되어 학교 수학경 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는 선생님께서 직접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 죠. 아직까지도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는 저에게 짓궂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 사랑이 아니 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우리 엄마와 다른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선생님 께서도 한때 건강을 잃으셨던 적이 있으셨다는 것어요. 젊은 시절 교사 생활을 잠시 쉬어야할 정도로 편찮으셨던 적이 있으셨다는 것어요. 엄마 께서는 그때 선생님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는 걸로 보아서는 꽤나

심각하게 편찮으셨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떠올리며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슬 픔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선생님 덕 분에 잘 이겨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선생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잘 이 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아픔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언제나 건강하세요. 저도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더욱 튼튼해지면서 더욱 멋진 호원이가 될게 요. 가을에는 낙엽 한 장을 보고도, 봄에는 푸르게 돌아나는 새싹을 보고 도 사랑을 배울 줄 아는 호원이가 될게요.

박호원 · 경기 심석초등학교 4학년 국화반 · 이 글은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괴짜 제자의 고백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차용훈입니다.

선생님과 2반 친구들과 처음 만났던 날이 여름이었는데, 오늘 등굣길은 추웠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선생님과 이별도 오겠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학교로 오셔서 사실 겁도 났었고 무서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날 많이 혼내시려고 엄마께 전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엄마에게 전해 듣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에서 용훈이 편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오셔서 반 아이들에게 용훈이의 입장을 이해 시켜주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셨다고요. 선생님, 저는 그것이 전학 온 저에게도 2반 친구들 모두에게도 좋은 길이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투거나 주먹이 오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적응 못했던 그때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시간

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영어 반장도 되고, 친구들과 간식도 먹고, 보드 게임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 먼저 제게 놀자고 말을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등교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바쁜걸까요?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하고 장난도 쳐야하고 말도 많이 해야 하고 수업 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과 2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매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날 선생님께서 절 바라보시던 눈빛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 연습 하던 날, 늦잠으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친구들이 운동장에 줄을 모두 서 있어서 부끄러워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싸, 이때다’ 하고, 신나게 읽고 싶은 만큼 교실에서 만화책보고, 놀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 끓이시며 땀 흘리며 절 찾아다니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저와 선생님은 만났고, 선생님께 엄청 혼날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 갔었냐는 한 마디와 많은 걱정이 담긴 눈을 보고 너무 죄송해서 차마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변변한 답이 없던 제게 점심 먹으러 가자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기억에 이상하게도 너무나 또렷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금도 그때도 언제나 똑같은 목소리와 마치 '널 이해할 수 있단다' 라는 듯한 눈빛으로 절 기다려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많은 반성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반성문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 날 썼던 제 반성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 진심이었어요. 제 반성문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답까지 달아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회 연습 빠진 것 때문에 운동회 날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선생님, 괴짜 같은 저를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장점을 칭찬해주시고,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6학년까지 제 담임선생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요. 그럼 이제 별난 괴짜 말고 정말 멋진 남학생이 될 자신 있는데 말이지요. 전학 온 제가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차용훈 · 강원 동해동호초등학교 3학년 2반 · 이 글은 강원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아빠이자 선생님의 딸내미가

가장 사랑스러운 첫 번째 애제자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떠나신지 열흘이 되었네요. 가시는 날까지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울까봐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는 제 마음처럼 허전해요.

저는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했던 인생을 그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던 제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많은 저를 모두들 다그쳤지만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다 울고 진정되면 얘기해도 괜찮아.”라고 하신 것은 선생님이 처음이셨어요. 그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들은 무관심할 지도 모르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마음을 열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그저 그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로, 그저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보육원에 살고 있는 저는 학부모회 참석이 불가능했지만 학부모회에서는 불만스러워했어요. 이상한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과 귀를 돌고 돌아 제 귀까지 들려왔어요. 집에 협박 전화가 오기도 했죠.

솔직히 진짜 무섭고 힘들었어요. 보육원에 사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도 없고 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선거를 나간다고 하니, 집(보육원)에서는 공부나 하라는 말이 되돌아 왔고 도저히 혼자 그 상황을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께 털어놓았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제 편에서 보육원 선생님들을 설득했고, 믿음에 보답하듯 부회장에 당선되었어요. 언제나 저 믿어주셔서, 힘들 때마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2학년 때 국가간청소년교류에 불합격했었는데, 3학년 때 탈락을 걱정하며 지원을 고민하던 저에게 선생님은 용기를 주셨어요. 1차 합격이 발표 후,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면접 장소까지 혼자 가야 했어요. 청주에서 시내버스만 타고 다닌 저에게 서울은 넓고 무서운 곳

이었어요. 제 걱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선생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같이 가자고 하시고 무사히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최종 합격이 발표된 날 선생님께 합격자 명단 종이를 편지처럼 드렸어요. 모든 일은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렸고, 제일 먼저 축하해주신 것도 선생님이셨죠.

1박 2일인 1차 교육과 2차 교육 때, 서울까지 데려다 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것은 아빠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인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고 왔어요. 더 중요한 건 다녀와서 제 꿈인 출입국심사관과 더 크고 넓은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군대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원망을 했었는데 제대 후 선생님이 되셨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챙겨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없이는 제 인생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

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감사한 마음을 이 짧은 편지에는 다 못 담았으니까 제대하시면 꼭 만나서 감사한 마음 제대로 전할게요. 제 아빠이자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정신적 지주이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유진 · 충북 오창고등학교 3학년 1반 · 이 글은 충청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맛있는 반찬들, 호텔 스테이크로 값을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년 전 선생님 반 제자들 중 한명이었던 애령이에요. 그간 감사했던 맘을 표현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쓸 기회가 생겨 너무나도 좋습니다.

때는 2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한 전 여전히 작고 생각 없는 철부지 소녀였어요. 단순했던 초등학교와 달리, 복잡하고 중요한 중학교 규범이 적응하기 힘들고 지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랬던 저에게 좀 힘들다면 힘들고 안 힘들다면 안 힘든 집안사정이 있었죠. 제가 어릴 적 부터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결국 이혼하신 뒤 저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빠는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일을 하시러 갔죠. 집에 남은 저와 여동생은 밥하는 것도 서툴고 빨래하는 것도 서툴고, 요리도 청소도 모든 것이 서툴러 집안엔 벌레들도 득실거리고, 먼지도 쌓여 쾌쾌한 냄새도 났었어요.

그렇게 약 2년을 생활하다보니 제가 중학생이 되어, 생각이 어른스러워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여자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티프하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신 분이

였어요. 그런 선생님은 그저 무섭기만 했지만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아신 선생님께선 저를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하셨죠. 집에 동생과 저만 살다 보니 반찬은 계란과 김치뿐이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조림도 먹고, 콩나물 무침도 먹고, 고기도 먹고, 콩자반도 먹고 가끔은 오뎅 볶음도 먹었어요. 그 반찬들을 먹으며 저는 선생님 생각 밖에 안했답니다. 어린 저를 동정보다는 용기를 더 부여해주셨고 공부를 못하던 저에게 끊임없는 칭찬과 사랑을 주셨어요.

저에게 불쌍하다, 안타깝다는 말보단 기특하다, 용감하다, 예쁘다, 부지런하다, 활발하다 등 제가 주눅들지 않도록 자신감을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선생님께선 제 편이셨고 또 엄마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저에겐 선생님은 정말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2년이나 지났지만 전 슬픈 일이 있어도 선생님이 생각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선생님이 쫄 처음으로 생각이 나요. 만약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전 자신감도 없고, 저를 비롯해 제 가족들까지도 창피하게 여겼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기특하고 예뻐서 챙겨주신 것일지

라도, 저에겐 지금의 꿈을 갖고 공부하는 제가 될 수 있었던 원천이 됐습니다. 그때의 선생님의 도움은 정말 따뜻했고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김 박스도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 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꼭 나중에 간호사가 되서 고급호텔에서 스테이크 사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만주세요. 항상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윤애령 · 충남 천안여자중학교 3학년 3반 · 이 글은 충청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선생님을

떠올리곤 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이 띄운 수많은 별들

충남 아산북수초등학교 6학년 5반 김찬우

어부바 선생님

전북 화산중학교 3학년 1반 이준표

‘흥’까지 완벽한 선생님

전북 괴곡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지율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나를 일깨워준 것

전남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1학년 1반 오채원

교장 선생님,
우리 엄마를 말려주세요!

전남 소안초등학교 4학년 1반 김하은

선생님이 띄운 수많은 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 제자 김찬우예요.

편지를 쓰려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최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쾌하고 친구 같은 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네요.

처음 선생님의 존재를 접한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누나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키가 엄청 크고 모델 같은 선생님이 계시다며 자신의 영어 선생님이고 ‘플라워 티처’라며 자랑했어요. 그 선생님이 대체 누구실까 생각했는데 학교 방학 영어캠프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을 보게 됐고, 정말 반가웠어요. 누나가 말한 대로 키도 크시고 영어도 잘하셔서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다음에 아는 척을 하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과 제자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6학년 5반 교실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우리 반 선생님이 손희진 선생님이라고 할 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영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하시겠어?’라 생각하며 아닐 것 같지만 조금 기대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내가 아는 그 손희진

선생님이 맞아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1년이 더 기대되고 행복할 것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수업 중에 가장 재미있게 들은 수업은 사회 수업이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고 오늘날과 비교하여 역사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실 때는 다 같이 웃기도 했고요. 영어 선생님이셨던 선생님께서 사회를 너무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 전공이 역사시고 영어를 좋아해서 따로 공부하셨다니 더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가 되신 거잖아요? 선생님의 도전 정신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요.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곤 해요. 이번에는 책을 읽다가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바쁘실 때도 선생님의 시간 쪼개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 주를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나무가 자신의 열매, 잎, 가지, 기둥까지 준다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웃음, 사랑, 교육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선생님이 가이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의 꿈'이라는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같이 말이에요. 그 도착지에 도착하기 위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난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으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편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진로 수업과 많은 진로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학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나설 수 있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를 잃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가치와 희망을 심어준다면 그들도 힘을 내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언젠가는 재활의학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더 큰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울게요. 모두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크게 빛나는 별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선

생님처럼 많은 또 다른 별을 띄우고 떨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띄운 다른 별들도 별똥별이 되어 떨어지기 전까지 많은 별들을 띄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초등학교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중학생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도 꼭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 모두 기억하고 있을게요. 선생님,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김찬우 · 충남 아산북수초등학교 6학년 5반 · 이 글은 충청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어부바 선생님

주원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2008년 순성초등학교 때 제자 이준표입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많은 제자들 중 한 명인 제가 기억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기쁘면서도,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 추석이었습니니다. 동그랗고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감정을 느끼기도 했겠죠. 매달 볼 수 있는 보름달이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벌써 9년 이상이 흘러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마치 보름달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보름달만큼이나 가득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저희들의 첫 담임 선생님이셨고, 저희들은 선생님의 첫 제자들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질문에 수줍음 많던 제가 그냥 ‘씩’ 웃자 선생님께서도 그냥 같이 환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때를 기억해보면,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저에게 있어 초등학교 입학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늦잠자서 지각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선생님께 혼나고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무서울까?’ 등등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교내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항상 웃으시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편안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어부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의 생일마다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생일 축하 왕관을 씌워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업어서 교실 한 바퀴를 돌아주시며 축하해 주셨던 것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체격이 저의

어머니만큼 작으신데도 어렸을 때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저를 ‘어부바’ 해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의 등에 업혀서 교실 한 바퀴를 도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선생님의 ‘어부바’ 생일 축하는 모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업어주셨던 것은 단순히 생일 축하의 의미를 넘어 사랑과 따뜻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부바’를 통해서 선생님 등의 따뜻함을 느꼈던 행복했던 순간은, 몇 십 년이 흘러도 순성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부바’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짝공을 정해 급식실에서 선생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기억, 식사 후에는 손잡고 교내를 산책하면서 다정한 말씀과 웃음으로 편하게 해 주셨던 기억, 연필 잡는 법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연필을 잘 잡고 써야 한다며 편안하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 그 밖에도 일기장의 확인란에 남아있는 선생님

의 따뜻한 말씀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한 소중한 추억들은, 다른 반 친구들에게는 없었던 선생님만의 특별했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느꼈던 선생님의 따뜻한 등의 느낌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을 ‘어부바’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찾아뵙고 해드릴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준표 · 전북 화산중학교 3학년 1반 · 이 글은 전라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흥’까지 완벽한 선생님

김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 김지율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저희의 장난도 항상 웃으시며 받아주시고, 교실에서 조금 뛰어놀아도 웃으시며 바라봐 주시고, 또 저희에게 장난도 먼저 거시는 모습이 꼭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힘들어 할 때는 쉴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주시며 항상 저희를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저희가 교실에서 놀면서 날려 보낸 종이비행기에 맞으시고도 웃으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비행기를 주워주시기도 하셨네요. 그리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화내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가을 운동회 때,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실 때는 마치 ‘제 2의 유재석’ 같았습니다. 1년 중에서 학부 모님들도 가장 많이 학교에 오시는 가을운동회에서 전교생과 많은 학부

모님들 앞에서 흥겹고 재미있게 운동회를 진행하시는 모습에,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정말 죄송했고, 또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때 저는 뭘지 모를 억울한 감정에만 휩싸여,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일부러 큰 소리로 울기만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멈출 때까지 제 손을 계속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음을 멈추자,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지율이 마음 안에 어떤 답답한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며, 오히려 제 마음까지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술 시간에는 연필만을 이용해서 탁자 위에 놓인 지구본을 그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그림에 명암을 더해 주셔서, 제 그림을 볼 때면, ‘멋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언제나 자상하게 웃으시며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마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기는 4학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중국어, 영어 등을 말씀하시고, 가끔은 칠판에 한자를 멋지게 쓰시면서 저희에게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조금씩 알려 주실 때면 선생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제 인생에 ‘완전한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 가는데, 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올 해 선생님과 함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국어 시간에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때, 그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에 맞게 목소리를 흉내내시면서 재미있는 목소리로 표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종례 후에 교실을 나설 때, 항상 하이파이브로 저희에게 힘을 주실 때면 남은 하루도 힘이 생기는 듯합니다. 김

진우 선생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우리 4학년 행복하게 지내요!

김지울 · 전북 괴목초등학교 4학년 1반 · 이 글은 전라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나를 일깨워준 것

선생님. 저 똑순이 오채원입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6학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이처럼 굴었던 제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제가 6학년이 되고 1반을 들어간 첫 날, 저는 보통 선생님들과 너무나도 달랐던 선생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시던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다 배고프면 식빵을 4B 연필로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시고, 옷을 무슨 살 필요가 있냐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저는 꽤 높은 성적으로 성실한 학교생활을 했고, 그림도 꽤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몇몇의 여자 친구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었죠. 그 때 선생님께서 제게 조언을 안 해주셨더라면 더욱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혼자 마음 아파하며 성적도 제대로 못 내고, 그리던 그림도 관두었던 제게 선생님께서는 “이럴수록 마음 독하게 먹고 이겨 내야해. 채원아. 항상 올백만 맞겠다고 노래를 부

르고 열정 많던 채원이가 보고 싶구나. 너의 눈에서 선생님은 진심을 봤는데? 다시 선생님이랑 열심히 그림 그려 보자.”라며 용기를 주시고 또한 터닝포인트가 된 ‘어떤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학교 정문에 걸리는 게시판 그림이었습니다. 그곳에 걸리는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것이 어땠겠냐고 권유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선생님. 감사하지만 그림을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지요.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괜히 더 이상 마음 아프기 싫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깊게 꿰뚫으신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채원이가 싫다는데 더 이상 권유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널 보는 여자애들의 기분 나쁜 눈초리가 네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구나. 하지만 이것야. 개들은 널 질투하는 거야. 너의 능력을 시기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꼭 안겨 눈물을 펄펄 흘리고 나서야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달랑 게시판 그림 하나 가지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눈초리가 두려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윤영미 선생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미움 받을 용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게시판 그림 꾸미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늦게까지 남으셔서 제 사정도 들어주시고 그림을 그릴 기회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졸업하기 전까지 “선생님!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림도 그려서 꼭 서울예고 갈게요.”라고 당당히 외치던 제가 여수석유화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아직도 미술도구만 보면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라요.

중학교 1학년 때 스승의 날을 기념하러 한번 찾아뵈러 간 것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섬으로 발령 났다는 정보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이 끝까지 미술은 안했네!”라고 하실 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선생님, 저 사실 여기서도

질투와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중요시하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전공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다른 과의 자격증도 슬며시 눈 여겨 보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는 당당하게,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 정문 앞 게시판에 크게 붙어있던 제 그림이 선명합니다. 언제나 제가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라 주셨던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채원 · 전남 여수석유화학교등학교 1학년 1반 · 이 글은 전라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엄마를 말려주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많던 잠자리가 사라지고 바닷가 갈대와 억새가 춤을 추는 가을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옆집에 사셔서 저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텃밭에 배추도 심으시고 풀도 뽑으시느라 힘드시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또, 바다에서 주워온 해초도 따서 나눠주시고요. 교장 선생님, 일 조금만 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본 다른 교장 선생님과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이름도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점이 참 좋습니다. 또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점도 좋아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글을 쓰는 방법을 잘 몰라 대회에 참가할 실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소안 향일 기념 백일장>에서 금상을 받고 상금도 20만원이나 받을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택입니다. 글 쓰는 방법과 다듬는 방법을 익히게 되어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어 우리 가족 모두 너무 기뻐했어요. 할머니께서

는 저만 보면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글쓰기에 무척 자신이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작은 것도 칭찬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갈수록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다듬어 주신 글을 읽고 또 읽어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글쓰기 대회가 있으면 우리 4학년 독서 동아리 친구들을 불러서 안내해 주시고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의 생각을 물어 주셔서 글쓰기에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상을 받아야겠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 엄마는 내년에 여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를 말려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독서토론도 하고 글쓰기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많아서 헤어지기 싫어요. 그런데 아빠가 취직을 하셔서 이제는 아빠가 우리들을 데려다 주실 수 없거든요. 여수에서 완도까지 버스로 오는 것은 매우 불편해요.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엄마를 설득하면 아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와 하성이는 그

정도 불편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도와주실 거죠? 더 열심히 해서 학교를 빛내는 어린이
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하은 · 전남 소안초등학교 4학년 1반 · 이 글은 전라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초강력 무선청소기보다
흡입력 있는 선생님의 수업으로

한 소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글은 똥 싸듯이 쓰는 거야

경북 의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김나영

초강력 청소기보다
흡입력 있는 수업

경남 창원여자중학교 3학년 3반 신채원

10살 인생에서 만난
허니버터칩 선생님

경남 집현초등학교 3학년 2반 구도희

부탁하는 기도 대신
감사하는 편지를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김은영

내 마음속 서머힐,
교장 선생님께

제주 하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이서연

글은 똥 싸듯이 쓰는 거야

안녕하세요, 송규흠 교감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 김나영입니다. 절 잊으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벌써부터 선생님의 미소와, 자상하고 따뜻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를 처음 보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에 적응도 못한 채 야영을 갔었고 그곳에서 장기자랑으로 혼자서 춤을 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선생님께서는 ‘너의 이름이 김나영이냐’며 혼자서 아주 멋있게 춤을 댄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높고, 중요한 지위에 계시는 교감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칭찬을 받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를 보면 ‘댄싱퀸’이라는 별명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낮은 성적 때문에 작가의 꿈도 점점 제 곁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창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글짓기 공모전을 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글을 공모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학교를 통해 전해지던 날, 선생님께서는 교무실 뿐 아니라 교장 선

생님께도 저에 대한 좋은 말들을 해주셔서 덕분에 지금까지도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들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방황하며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 날이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 차례 비가 퍼붓고 시원한 공기가 주위를 감싸던 그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바람에 노래와 춤추는 것에 잠시 빠져있었지만 ‘문학’의 높이 너무 깊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글을 쓰던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의 제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을 하시기 전에 국어선생님을 하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가끔씩 선생님의 옛 제자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작은 화분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며 ‘언제나 좋은 스승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주셨습니다. 특히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평소에 글을 쓰신다는 걸 듣고, 저처럼 문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국밥 한 그릇 먹은 듯 뜨끈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때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쓰신 작품들 모두 멋졌어요. 언제나 선생님께서는 글을 쓸 때 “똥을 싸는 듯이 써라.”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마냥 웃고 넘겼는데 선생님이 곁에 없는 지금에야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작가라면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꾸밈과 과장 없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 훗날, 작가가 되었을 때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떠올리며 글을 쓰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많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항상 절 응원해주시던 분은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지

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언제나 함께 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마지막 남은 졸업까지 무슨 일이든 잘 이겨낼게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네요. 이제 바람이 차서 가디건을 꼭 가지고 다녀요.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올해 꼭 대학 합격해서 연락해라”라고 하신 말씀 지키겠습니다. 꼭 작가가 되어 제가 쓴 책이 나오면 처음으로 선생님께 보여드릴게요. 의성여고 친구들과 저에겐 영원히 따스했던 교감선생님으로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나영 · 경북 의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 이 글은 경상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초강력 청소기보다 흡입력 있는 수업

어느덧 포근한 니트를 꺼내 입고 싶은 서늘한 듯 쌀쌀한 가을이 왔어요. 선생님과 함께 보냈던 가을 후로 약 4년이란 시간이 흘렀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조경진 선생님의 5학년 3반 웃음마녀 신채원입니다. 선생님은 지금쯤 예쁜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시죠?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웠던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는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박에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왜 선생님이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냐고요? 바로 선생님이 제게 공부라는 것에 흥미를 처음 느끼게 해주셨고 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4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라는 수동적인 태도였어요. 손톱의 때만큼도 공부란 것에 흥미를 느껴본 적도, 하고 싶던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제 가치관, 어쩌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신채원이라는 한 소녀의 인생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코흘리개 시절 빨아먹던 사탕보다 중독성 있었고

엇그제 엄마가 홈쇼핑으로 주문하신 초강력 무선청소기보다 흡입력 있었죠! 선생님의 수업시간 내내 단 한 순간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을까?’, ‘선생님이 준비하신 자료는 언제나 도움이 되고 흥미로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일, 즉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집에 오면 달달한 과자와 고소한 우유도 제쳐 두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교과서를 펴고 마치 제가 선생님이 된 듯 선생님이 하셨던 수업을 그대로 흉내 내보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직접 인터넷에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수업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수업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가장 멋진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선생님이 진로 시간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도전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문제로 힘들었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저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지요. 지금도 교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그리고 10살 터울인 쌍둥이 남동생들은 여전히 저를 무슨 장난감 대하듯 여기네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이 쌍둥이 녀석들부터 바로 잡아야겠어요!

제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친구예요. 선생님은 긴 학창시절, 가장 재미있고 편했던 친구 같은 존재예요. 사실 4학년 때 왕따를 당한 것 때문인지 친구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저는 점점 더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항상 혼자 다니던 것이 익숙했던 제게 선생님은 정말 편하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셨어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말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로 친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친구에 대한 거리낌도 많이 사라졌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친구는 어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 저희 반 '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던 신채원, 많이 발전했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언제나 아름다우시고 멋진 우리 조경진 선생님!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이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친구 같은 존재이십니다! 언제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채원 · 경남 창원여자중학교 3학년 3반 · 이 글은 경상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10살 인생에서 만난 허니버터칩 선생님

이형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꿈과 끼를 살리며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집현초등학교에 다니는 구도희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 2학기가 되었네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하다보니 1, 2학년 때와 달리 3학년 때는 멋진 이형석 남자 선생님이 신규교사로 부임해 오시고 담임이 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2016년 3월 2일,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을 푹푹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려운 임용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우리를 잘 가르치러 우리 학교에 오셨다고 소개시켜 주셨어요. 남자 선생님께서 담임이 되어 정말 좋았던 나는 “와~아!”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오고 선생님과 공부하는 시간들이 ‘허니버터칩’처럼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 활동을 뭐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합창부를 맡으신다고 듣고 주저 없이 합창부에 가입했어요! 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받았을 때는 하늘을 날 듯 기뻛고요!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착실히 하여 더 좋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정한 학급 규칙을 잘 지키니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3학년 2반이 되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나, 더 좋은 우리!’라는 학급 목표 아래 우리 모두 큰 꿈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2학기에도 선생님의 기대와 격려에 소홀함이 없는 도희가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형석 선생님. 고맙고 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구도희 · 경남 집현초등학교 3학년 2반 · 이 글은 경상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부탁하는 기도 대신 감사하는 편지를

다원 쌤, 안녕하세요. 은영이에요. 잘 지내시죠? 원래는 좀 더 일찍, 스승의 날에 먼저 가서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멀지도 않고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고3이라고 주변 일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해해주실 거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선생님께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손 편지를 추천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걸 계기로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든 편지를 쓰는 걸 나름대로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매년 편지 혹은 작은 쪽지라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올해도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쓸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편지를 쓰는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분명히 만족스러웠고 행복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준만큼의 마음을 돌려받고 싶고 보답 받고 싶더라고요.

자꾸만 바라게 되고 실망하게 되며 편지쓰기를 망설였는데, 최근

계속해서 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기도를 할 때 보통 무엇인가를 원하고 부탁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수능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지금 제 상황에 여러모로 들어맞아서 ‘감사의 기도’ 대신에 ‘감사의 편지’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평소에 어떤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 감사의 인사가 참 어색하다고 느껴지네요. 사실 3학년이 되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유리멘탈’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3학년이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주변 신경 하나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별 것도 아닌 거에 신경 쓰고 상처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가볍게 장난처럼 얘기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친구들도 다 힘든 거고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겨내면 되는 건데, 바보같이 제가 그걸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다 삭혔죠.

그런데 선생님, 거꾸로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힘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이겨내 온 거예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두렵지만 이제까지 버텨온 것에 주목해보니까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달려갈 힘이 생겨요.

앞서 말했듯이 지난 시간동안 제가 힘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속에서 처음으로 겪는 복잡한 감정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고, 그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졌어요. 그 감정들이 처음으로 터져버렸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고 상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같이 고민해주시고 계속해서 제 감정에 대해 물어봐주시면서 제 상처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요.

선생님, 작년 문학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시 생각나세요?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요. 그 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난 당신이 필요해요’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반 친구들에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고교시절 동안 제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저의 모습은 선생님을 닮아있기를 바라요.

선생님, 긴 글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글 멋진 글을 쓰고 싶었지만, 표현의 한계에 부딪혀서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주세요. 선생님, 항상 소녀 같은 모습으로 밝은 웃음 잃지 않고 계셔주세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라도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김은영 ·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내 마음속 서머힐, 교장 선생님께

제주도의 높고 파란 가을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요즘이에요. 양애자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 이서연이에요. 조금은 지루했던 4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보낸 문자였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신다는 문자였어요. 갑작스러운 교장 선생님의 전출 소식에 저는 너무 서운하고 슬펐지만 선생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을 떠올리며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편지를 통해 멀리 계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뻐요.

제가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과 만나게 된 그날, 설레임 가득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장 선생님 얼굴도 몰라서 서먹서먹 인사하던 저에게,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웃으면서 대화해 주셨잖아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콩콩 뛰고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2학년 때 <서머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학교는 영국에 있는데 시험도 없고,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학교였어요. 이 책의 저자인 그곳의 교장 선생님은 자유와

독서를 추구하는 멋진 선생님이었어요. 그 책을 가슴에 품고 서머힐을 상상할 때, 저도 다니고 싶고 그곳의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전학 온 하원초등학교가 꼭 서머힐 같았어요. 특히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교장 선생님은 정말 특별했어요. 전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별로 소통할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하면 어렵고, 멀고, 자주 뵈 수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하원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전교생의 이름을 모두 알고 상냥하게 불러주시고, 학생들 각자의 꿈도 알고 계셔서 응원해주시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교장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육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던 1년 정도의 학교생활은 자신감과 행복이 넘치는 날들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와 다투어서 학교가 소란스러웠을 때 실망하신 듯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

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습관 중에 책을 읽다가 좋은 말들이 나오면 한 구절, 두 구절 적어 놓으신다고 하신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책을 읽을 때 좋은 말이나 대사를 찾아보곤 해요.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서연이는 어느 대학 수의학과에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셔서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건국대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20년 후에 다시 만나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고 하셨지요? 꿈을 이루려면 많이 힘들겠지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 어디에선가 저를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더 많이 읽어서 꼭 제 꿈을 이룰게요.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날 땐, 선생님께 받은 책을 꺼내보곤 해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에 친구들에게 주셨던 책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 보물 1호예요. 20년 후에 만났을 땐, 선생님께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꼭이요!

교장 선생님, 정말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 새로 가신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주세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할 친구들은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편지를 쓰는 동안 선생님과 추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그리워서 이만 줄여야겠어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서연 · 제주 하원초등학교 4학년 1반 ·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가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1 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진일보한 대한민국의 내일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달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본 공모전을 통해 모인 3만 여 통의
편지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인성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음이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육부도
더욱 정진하고 힘쓰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어릴 적, 참 좋은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면면들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인 편지들 속에는
훌륭한 스승, 그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인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른, 인성이 바로 선
아이들이 만들어나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최불암

A-Yo! 요즘 '말' 많이 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 감사하고 좋아하는 마음일수록 글로 쓰고,
소리 내어 말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 이번 공모전이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존경 받는 기쁨도 편지를 거치니 두 배,
세 배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재단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재능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공모전 홍보대사 노홍철